

# 광주·서울 가지않고 척추 수술

### 순천에 56병상 규모 척추전문 '서울우리병원' 문 열어 전문 의료진·첨단 장비 갖춰 전남동부 지역민 큰 도움

척추전문병원인 '서울우리병원'이 최근 순천에 문을 열었다. 최첨단 장비를 완비하고, 전문 의료진이 직접 수술을 집도해 척추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순천지역 척추환자들은 인근 광주나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서울우리병원은 보존치료와 수술치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들로 포진돼 있어 서울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서울우리병원은 진료 경험이 풍부한 척추 전문의 3명과 마취과 전문의 1명, 영상의학과 1명으로 구성된 척추환자들을 치밀하고 섬세하게 진찰할 수 있다. 이종 김정목 대표원장은 '서울우리병원'에서 수년간 지식 습득과 치료경험을 쌓아 많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의이다.

서울우리병원은 척추 전문병원으로써 필수적인 최첨단 MRI를 도입했다. 또한 최고 사양의 수술 현미경 및 내시경 장비 등을 준비해 최소 침습으로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존치료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필요한 척추기능 측정 및 척추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구비했다. 척추환자를 편안하게 치료하기 위해 56병

상을 마련했다.

서울우리병원의 장점은 수술 후 입원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입원기간이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만 충분히 직장인들에게 한층 도움이 된다.

특히 기본적인 약물처방에서부터 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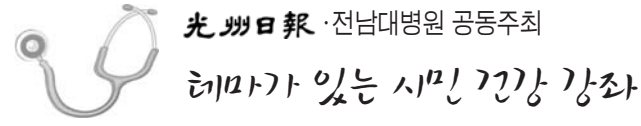


김정목 서울우리병원 대표원장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30대 회사원에게 통증의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치료, 수준 높은 척추기능치료, 통증치료, 수술치료까지 척추질환환자에 대한 모든 치료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서울우리병원은 순천도심의 중심지인 조례삼거리 메디컬타운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오병원삼거리로도 잘 알려진 이곳은 순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까지 매일 경유하는 곳이어서 지역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행복이 있는 시민건강 강좌

소변 잘 보십니까

# 40세 이후 혈뇨 요로종양 의심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따라 방광으로 내려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콩팥에서 물과 아미노산, 포도당, 그 밖의 유용한 영양물질을 걸러낸 후 요소· 무기염류·크레아티닌·암모니아·색소침착물질 등의 물질들이 배출된다.

우리 몸은 70%가 물과 같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고, 살아가기 위해 마치 화학공장처럼 여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노폐물뿐만 아니라 넘치는 불필요한 물질을 제때에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면 마치 화학공장의 배수구가 막혀 온갖 폐수와 오염물질이 공장에 가득 차버리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관인 전립선과 소변의 색이 이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전립선이란 남자에게만 있는 방울만한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최근 열린 '행복이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강택원 교수가 전립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 초기증상 없는 전립선암 조기발견 중요

## 50세 이상 남자 정기 소변검사 받아야

것인데 영어의 prostate(전립선)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말로로는 '앞에 서있는 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변이 방광에 모여 있다가 양이 많아지면 요도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야하는데 이것이 수문장처럼 방광과 요도 사이에 버티고 있으면서 소변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것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고달롭게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나쁜 역할도 있는 것이어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 정자가 자유로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인류 보전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호르몬 비율의 변화와 노화현상의 하나로서 크기가 커져 소변의 흐름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암세포가 생겨 생명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소변은 요소색에 의해 노란빛을 띠게 되는데 농축된 것일수록 짙은 색이 된다. 오줌이 탁하게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는 등의 이상소견이 보이면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붉은 색의 소변을 보면 안에 걸린 것은 아닌지 고민

거리가 된다.

그러나 소변이 붉다고 모두 혈뇨인 것은 아니고, 또한 혈뇨라고 해서 모두 붉은 소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 일단 비뇨기과에서 소변검사를 해보면 소변에 피, 단백질, 당 성분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 실제로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혈뇨, 색소가 포함된 약이나 음식을 섭취한 경우, 황달이나 탈수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며 소변검사를 통해 피가 섞여있는 것이 확인되면 소변 내 암세포검사와 혈액을 통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신장기능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 신장-요관-방광 등 요로계를 촬영하는 경정맥 요로조영술 등을 통해 혈뇨의 원인과 발생부위를 찾는 검사를 하게 된다.

혈뇨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고열, 열감과 몸이 춥고 떨리는 증상 후 발생하는 일 시적 또는 반복된 혈뇨, 옆구리나 배의 참을 수 없는 통증, 소변이 가늘거나 자주 마렵고 남는 느낌이 있는 등의 배뇨증상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40세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이 눈에 보일 정도의 혈

뇨가 있으면 먼저 요로생식기의 종양을 의심해야 한다.

비뇨기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랫배나 회음부의 알 수 없는 통증, 소변이 힘없이 나오는 세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소변을 누고 나서도 마치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야간뇨와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혹시 알아서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증상이 직접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대중매체에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관심이 높아진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암종이 매우 크거나 뼈 등으로 전이되면 그때서야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초기에 검진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변 색이 이상하거나 세뇨, 빈뇨, 야간뇨, 잔뇨감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또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비뇨기과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의 남성은 1년에 1회 소변검사를, 피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검진받기를 권하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다른 증상 없이 혈뇨가 보일 때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자.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강택원 교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환자 맞춤형 치료...지역민에 최고 의료 서비스 제공”

## 서울우리병원 김정목 대표원장

“척추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서울이나 광주의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우리병원 김정목 대표원장은 전북 의대를 거쳐 전북대 병원에서 신경외과 수련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어 서울우리병원에서 진료부장과 수개 발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는 등 7년 동안 다양한 외과적 치료 경험을 쌓았다.

김 원장은 연고가 없는 순천에 개원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서울우리병원에서 근무시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많은 환자들을 보

면서 가슴이 아팠다”면서 “전남동부권의 중심지인 순천에 척추전문병원을 개원하면 척추질환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분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병원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광역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의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종종 질환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정도에 그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확한 진료를 토대로 적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남동부지역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겠다”며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친밀한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윤리에 근거를 두고 생활을 하며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생활 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이 있는 쌍꺼풀이 좋다고

을 수 있다. 짙은, 쌍꺼풀 풀어짐, 수술 부위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통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서구적이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표정이 있는 동양적인 쌍꺼풀을 만드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꺼풀 수술이란 중검 예정선의 피부를 검판 또는 안검거구의 적당한 부위에 유착시키는 조작이다.

수술방법은 피부 비절개는 매몰법이라고도 하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수술 후 수정이 용이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젊은 여성들은 절개수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안검 피부가 과다하거나 안검하수, 안검, 안와 지방의 과다 또

는 반흔이 있는 상안검 등에서는 피부절개법이 적절한 수술이라고 생각된다.

수술전 시력검사, 안검하수의 유무, 좌우의 균형을 관찰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며 환자가 이해하고 승낙하는 것이 수술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술후 경과에 대한 요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술후 1주일 은 세면이 불가능하며, 목욕은 발사 후 3일후에 안검의 부종이 3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없어지며 6개월이 되어야 수술자국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것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 쌍꺼풀 수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같은 쌍꺼풀이라도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쌍꺼풀이 있고 안면골의 골격이나 눈의 연부조직이 서양인들과 다른 동양인으로는 눈만을 서구인에 닮으려 해도 부자연스러우며 또 다른 기관과의 균형도 잡히지 않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성형외과 김영길 원장